
「2023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백일장 분야

작품 제목

정직한 기호 3번

작품 본문

4학년이 끝나고 1학기 전교 임원 선거가 열렸다. 아이들은 선거에 관심을 갖고 선거를 준비했다. 선거에 출마한 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1학년 때부터 꿈꿔온 일이었기 때문이다. 존경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기에 결코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아침에 선거운동을 도와줄 친구들을 모집했다. "혹시 아침에 선거운동을 도와줄 친구 있어?" 혹여나 아무도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여러 명이 선거운동을 도와준다고 하였다. 투표 전날 하교시간, 나는 선거운동을 도와준 친구들을 불렀다. 친구들은 호기심을 갖고 후다닥 뛰어왔다. 나는 선거운동을 도와준 친구들이 고마워 내 마음을 표하기 위해 새로 생긴 빵집을 가서 파티하기를 권했다. 친구들이 모두 좋다며 동의를 하고 파티를 했다. 저녁에 스마트폰이 울려서 보니 메시지가 와있었다. '오늘 빵 사줘서 고마워!' '맞아, 맛있었어' 우리 반 여자친구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이었다. 순간 나는 내 심장박동이 점점 빨라진다는 것을 느꼈다. 이마에서 인중까지 땀이 났다. 누구보다 더 선거 규칙을 잘 알고있는 나였기 때문이다. '선거 중에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해서는 안된다.' 이 규칙을 알면서도 규칙을 나는 어겼다. 정직하지 못했다. 메시지 옆에 읽음 표시가 15에서 0이 되더니 또 하나의 메시지가 왔다. '규칙위반이잖아.' '야, 너 규칙위반 한거야? 뽀뽀해' 그리고는 여러 장의 사진이 전송됐다. 투표 규칙을 자세히 적은 안내문과 오늘 파티사건, 빵을 계산하는 모습까지.... 수많은 비판글이 올라왔다. 나는 사과했다. '미안해. 다음에는 이런 일 벌어지지 않을게' '사고한다고 일이 끝나는게 아니야. 네가 책임져.' 투표 날 당일, 이 일은 학생 자치회 대표 선생님께서부터 해결되었다. 나는 규칙을 알고 있었음을 고백했고 친구들과도 진심으로 사과했다. 나는 당선되지 않았다. 투표자 수가 많았지만 파티로 인해 신고가 들어왔었다고 한다. 1학기 임원선거가 끝나고 학교가 잠잠해지던 쯤 2학기 임원선거가 시작되었다. '포기보다 도전을' 나는 도전했고 1학기 일을 바탕으로 정직한 기호 3번이 되어 정직한 전교 부회장이 되었다. 정직만 챙긴 것이 아니다 청렴의 6가지 덕목도 챙겼으며 가장 중요한 우정을 지켜냈다. 정직한 기호 3번 전교 부회장 나는 우리 학교의 청렴리더가 되어 정직한 길을 걷고 있다.